

## 진행된 하인두 편평세포암에서의 병합 항암방사선치료 (Concurrent Chemoradiotherapy)의 치료성적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sup>1)</sup>  
 치료방사선학교실,<sup>2)</sup> 혈액종양내과학교실<sup>3)</sup>  
 손영익<sup>1)</sup> · 백정환<sup>1)</sup> · 정용기<sup>1)</sup> · 안용찬<sup>2)</sup> · 박근철<sup>3)</sup>

**배경 및 목적** : 하인두암은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불량하며 수술 후에도 심각한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로 치료의 난점이 있는 질환이다. 최근 진행된 두경부암에서 병합 항암방사선치료의 치료적 역할에 대한 활발한 고려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진행된 하인두암에서 본 치료법의 치료적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최근 5년간 병합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던 하인두의 진행암(3, 4기)를 대상으로 평균 21개월(4~54개월) 추적관찰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치료법에 대한 치료반응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overall survival을 산출하였다. 본 치료법을 시행하는 도중의 임상적 경과와 전신독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결 과** : 병합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한 7명의 환자 중 2명은 3병기였고, 5명은 4병기였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전

신독성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전례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치료종결 후 2명은 완전관해를 보였고 이후 재발 없이 각각 16개월과 31개월간 무병상태로 추적관찰 중이다. 부분관해는 2례였고 1례는 구제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술후 2개월 쯤, 국소재발과 폐전이로 사망하였다. 다른 1례는 전신상태 저하로 추가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본 치료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는 3명으로 치료 종결 후 3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모두 사망하였다.

**고 찰** : 본 치료법의 증례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진행성 하인두암에도 본 치료법에 완전관해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비교적 예후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치료법에 대한 활발한 임상시도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